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1.12

인디아 브리핑

관세 리스크는 변수, 실적은 방향

Summary

지난 2주간(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9일) 인도 증시는 '소폭 강세 출발–중반 안정–후반 조정'의 흐름을 보이면서, 1.4% 하락하였다.

25년 12월 말 인도 증시는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방향성보다는 안정성에 무게가 실린 국면이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초로 접어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법안과 최대 500% 관세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인도에 대해 최대 500%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아직 미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실제 관세가 발효된 상태는 아니다. 인도 외교부 역시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의 대미 재화 수출은 GDP 대비 약 2.1%에 그치고, 서비스 수출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요 재화 수출 품목 또한 비탄력적인 수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더라도 인도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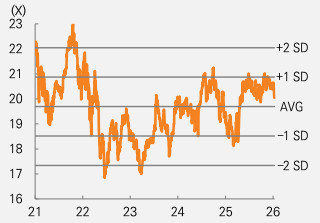
1월 12일부터 인도 IT 섹터를 시작으로 FY3Q26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개별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기반한 바텀업 관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IT 서비스 기업들은 주요 고객사의 IT 지출 둔화 영향을 여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금융, 경기소비재, 자동차 등 내수 중심 업종은 인도 정부의 소비 회복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수 성장 스토리는 인도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비중 확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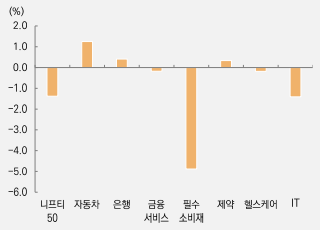
FY3Q26부터 본격화될 이익 모멘텀 개선 장기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또한, 인도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유지한다.

Nifty 50 추이

Nifty 50 밴드 차트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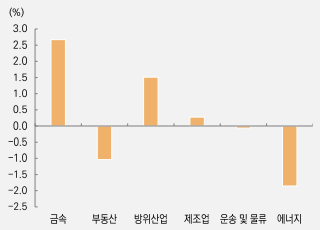


표 1. 인도 주요 지수 수익률

지수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Nifty50	-2.5	-1.4	-0.6	2.0	0.8	9.2	41.9	79.0
Nifty Next 50	-2.7	-0.7	1.2	0.0	-0.3	4.5	62.4	99.5
Nifty Midcap 50	-2.3	-0.5	-0.1	3.5	2.0	9.8	93.7	167.6
Nifty Midcap 100	-2.6	-0.9	0.1	2.3	0.7	7.2	88.4	169.2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주요 뉴스 및 이벤트 분석

미국 관세 압박 재부상에도 인도 펀더멘털은 견고

미국 '대(對)러 제재 법안' 재부각… 인도에 '500% 관세' 리스크

2026년 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 구매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미 상원 대러 강경파가 법안 재추진에 나서면서 법안에 명시돼 있던 '최대 500% 관세' 조항이 다시 부각되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25년에 발의된 「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우라늄 등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해당 법안은 의회에 계류되며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법안은 아직 미 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상태는 아니며,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라는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관세가 발효된 것은 아니다.

인도 외교부는 1월 9일 해당 법안과 관세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500%+ 적용되어도 인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인도의 전체 수출액(재화+서비스)은 7,780억 달러로, 인도 명목 GDP 3.57조 달러 대비 약 21.8%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재화 수출은 758.1억 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약 2.1%에 그친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대미 재화 수출이 인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참고로 같은 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180억 달러로, 인도 대비 약 1.6배에 해당한다.

인도의 대미 재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포장 의약품으로, 수출액은 104억 달러이며 이는 인도 GDP의 약 0.29%에 해당한다. 해당 품목은 대부분 제네릭(복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및 보석류(91.6억 달러), 의류(26.4억 달러), 기계류, 철강, 전기기기, 자동차 부품, 유기 화학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포함된다. 한편, 미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은 약 441.9억 달러로 GDP 대비 약 1.2%를 차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IT 운영, 백오피스 업무, 전문 인력 파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출은 관세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적용되더라도,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여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의약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대체재가 제한적인 제네릭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 관세 인상에도 수요 감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 보석류, 산업용 화학품, 기계류, 의류 등은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관세 인상 시 수요 위축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들 품목은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관세 인상이 인도 수출 및 거시 펀더멘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인도: 대미 수출 금액 분석 (2023년 기준)

항목	(억 달러)	GDP 영향(%)
인도 GDP	**35,676**	
전체 수출금액	7,780	21.8
대미 재화 수출금액	**758.1**	**2.1**
품목별 구성		
포장 의약품	104.0	0.29
다이아몬드& 주얼리	91.6	0.26
의류	26.4	0.07
기타 기계류	11.1	0.03
철강 제품	10.5	0.03
전기 기기 및 부품	9.8	0.03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8.9	0.02
유기 화학품	7.5	0.02
스파이스(향신료)	3.6	0.01
쌀(주로 바스마티 쌀)	2.5	0.01
식물성 수액 및 기타 중간 제품	5.9	0.02
기타	482.2	1.4
대미 서비스 수출금액	**441.9**	**1.2**

자료: 산업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음식 배달 gig 노동자 단기 파업: 이터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025년 12월 31일 인도 일부 지역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 소속 gig 노동자(플랫폼 기반 비정규·자영업 노동자)들이 단기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배달 수수료와 인센티브 구조, 사회보장 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의 집단 행동으로, 하루 단위의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후 추가적인 파업이나 전국 단위의 장기 행동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단발성 이슈에 그쳤다.

이러한 gig 노동자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과거에도 2021~2023년을 전후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사한 문제 제기를 동반한 집단 행동이 간헐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사례에서는 수일간 파업이 이어지거나 지역 단위의 배달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파업은 이에 비해 규모와 지속 기간, 시장 영향 측면에서 현저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이터널(Eternal, 음식 배달 플랫폼 조마토와 퀵커머스 플랫폼 블링킷을 보유) 최고경영자는 2026년 1월 초 배달 노동자 보상 구조를 정리한 투명성 factsheet를 공개하였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배달 파트너의 평균 시급은 102루피로, 전년의 92루피 대비 약 11% 상승한 수준이다. 또한 하루 10시간, 월 26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월 총수입은 2만6,500루피, 연료·유지비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2.1만루피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문당 평균 팁은 2.6루피이며, 팁은 조마토(Zomato) 주문의 약 5%, 블링킷(Blinkit) 주문의 약 2.5%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 논쟁이 음식 배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터널과 스위기(Swiggy) 모두 파업 당일에도 주문 처리와 배달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으며, 주문량 급감이나 서비스 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인도 gig 노동의 구조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는 되었으나, 과거 파업 사례와 비교할 때 플랫폼의 운영 안정성이나 시장 경쟁 구도에 미친 단기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인도에 미치는 영향

2026년 1월 3일 미국이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라는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근 포트 티우나(Fort Tiuna)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을 자극할 수 있어, 신흥국 전반에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전체 사용량의 85% 수입) 높은 국가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거나 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무역수지 개선, 인플레이션 완화, 통화정책 여력 확대 등 거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미·중 관계의 변화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군사·외교적 차원에서 재차 부각될 경우, 글로벌 전략 구도에서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 다변화, 외교·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핵심 국가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인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센티먼트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 패스트푸드 시장 재편

인도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사파이어 푸드(Sapphire Foods)와 데비야니 인터내셔널(Devyani International)은 2026년 1월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합병은 데비야니 인터내셔널이 사파이어 푸드를 흡수하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되며, 규제 승인 및 통합 절차를 거쳐 최종 완료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이후 통합 법인은 KFC, 피자헛(Pizza Hut) 등 주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패스트푸드 운영사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은 인도 패스트푸드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에 있다. 그동안 두 회사는 동일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도 지역별로 사업권이 분리되어 있어, 브랜드 단위의 통합 전략 수립이 제한적이었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했다. 합병을 통해 과거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프랜차이즈 운영 구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마케팅 전략, 매장 운영, 공급망 관리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합병 시점 역시 업황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최근 인도 패스트푸드 업계는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소비 회복 속도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별 사업자의 단독 확장 전략보다는 사업 통합을 통한 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 제고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종합하면, 사파이어 푸드와 데비야니 인터내셔널의 합병은 단순한 외형 성장보다는, 기존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프랜차이즈 운영 체계를 통합해 인도 패스트푸드 시장 내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통합 과정에서의 조정 비용과 실행 리스크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시장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타이탄 컴퍼니(TTAN IN, 매수): 소비 회복과 함께 반짝이는 실적 모멘텀

경영진의 FY3Q26 영업 업데이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는 보석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1% 성장하며 시장 기대치(20~2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금 가격 강세 지속에 따른 금 보석 판매액(ASP) 상승 효과와 더불어, 인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따른 수요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시계 부문과 안경 부문은 각각 13%, 16% 성장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FY3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7%, 40.8% 증가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FY2H26 역시 고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전년의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 FY2H26 영업이익 증가율은 14.7%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 가격 강세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증가율은 32.8%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소득층 가처분소득 증가에 힘입어 인도 보석 시장이 FY26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시장 점유율도 6.6%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실적 개선 흐름을 반영해 지난 1월 8일 FY26~27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8.2%, 7.8% 상향 조정하며, 목표주가는 5,200루피로 상향하였다. 타타 그룹의 브랜드 신뢰도와 보석 부문 중심의 구조적 성장성을 감안할 때 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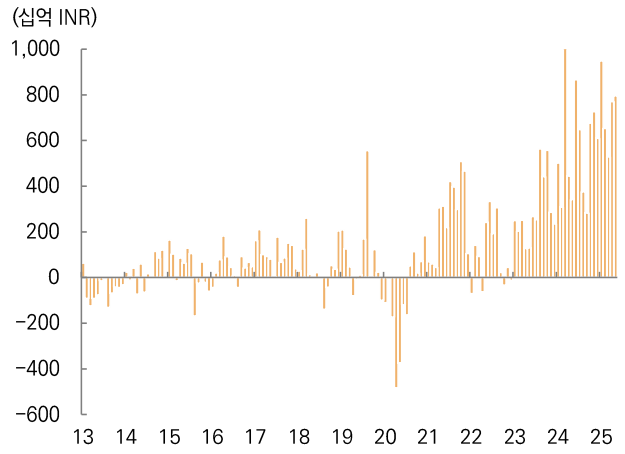
인도 주요 데이터

표 3. 인도 관련 주요 국내 ETF 수익률

ETF명	운용사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Tiger 인도 니프티50 (45387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9	-0.7	-2.0	3.8	3.4	4.2	-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47973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8	3.2	2.0	4.0	13.8	8.1	-
Tiger 인도 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23635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1.4	-2.9	-3.3	5.6	4.7	0.8	82.6
Kodex 인도 Nifty50 (453810 KS)	삼성자산운용	-1.0	-0.4	-1.8	4.1	3.8	4.0	-
Kodex 인도타타그룹 (477730 KS)	삼성자산운용	-0.1	1.2	1.5	4.3	1.1	-12.3	-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453820 KS)	삼성자산운용	-2.1	-1.5	-4.3	2.1	2.5	-0.9	-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0000H0 KS)	삼성자산운용	-0.8	0.1	-0.8	4.0	3.2	-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그룹액티브 (487920 KS)	한국투자신탁	-1.6	0.2	-0.8	2.6	3.0	-4.1	-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487910 KS)	한국투자신탁	-0.2	0.9	-1.3	-3.2	2.5	-9.9	-
KIWOOM 인도Nifty50(합성) (200250 KS)	키움투자자산운용	-1.5	-0.9	-2.4	3.0	2.2	1.8	40.7
RISE 인도디지털성장 (498610 KS)	KB자산운용	-0.5	-2.6	-2.0	3.9	0.7	-	-
에셋플러스 인도일등기업포커스20액티브 (0002C0 K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0	-1.8	-3.1	-3.4	-3.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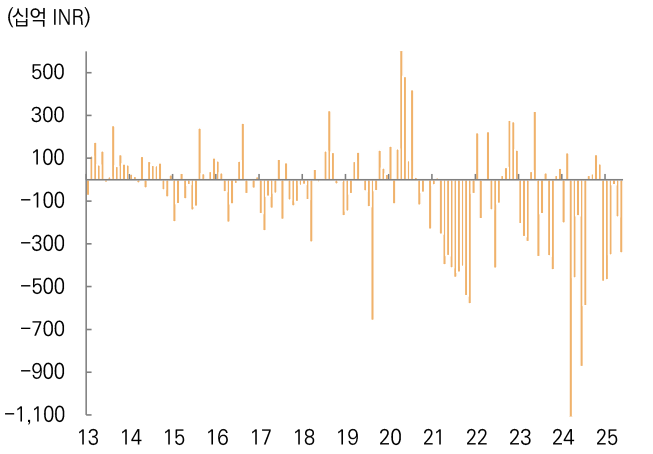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국내기관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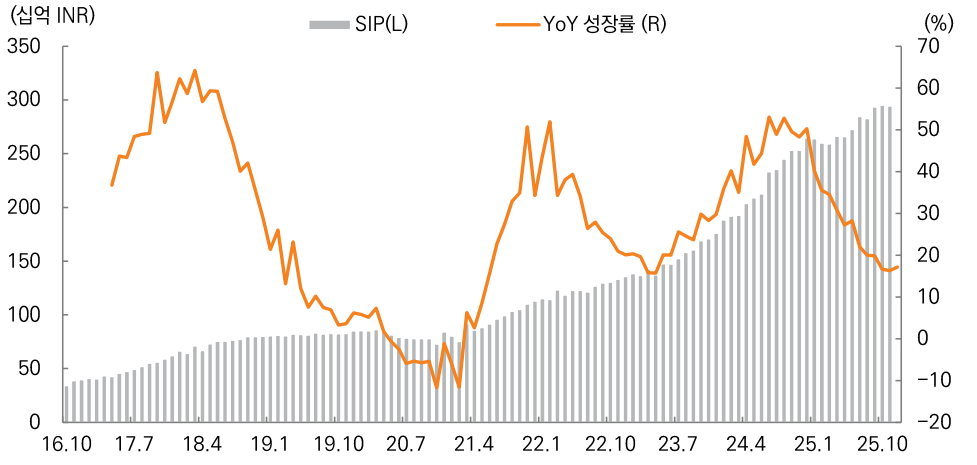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해외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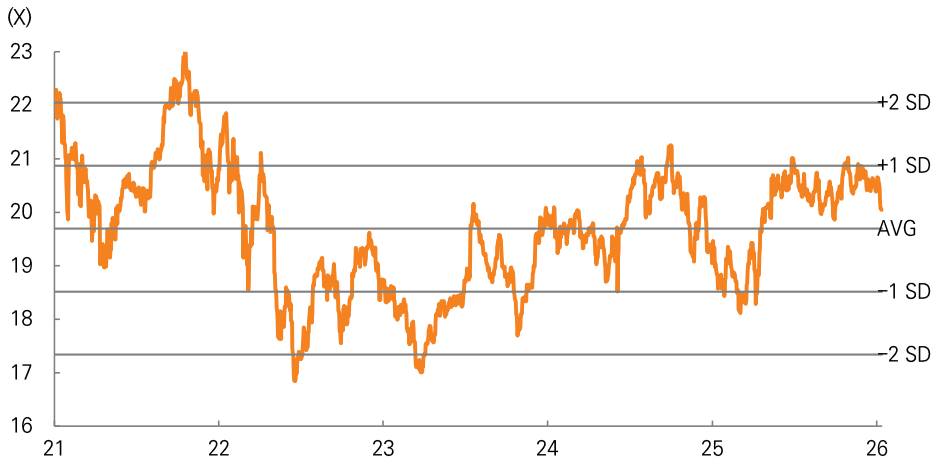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IP 적립식 펀드 월 단위 유입액 추이



자료: AMF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Nifty 50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4. Nifty 50 주요 기업 수익률*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 INR)	지수 비중(%)	2주간 수익률 (%)	투자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Reliance Industries Ltd	19,965	9.7	-5.4	-7.3	-3.5	6.8	-0.9	19.3	24.7
HDFC Bank Ltd	14,446	7.0	-5.4	-6.3	-5.8	-4.3	-5.1	14.9	17.6
Bharti Airtel Ltd	12,192	5.9	-3.7	-3.8	-3.0	4.5	6.4	26.5	147.4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11,606	5.6	-2.2	-1.3	0.0	6.3	-1.1	-22.2	-3.4
ICICI Bank Ltd	10,042	4.9	4.0	3.6	2.1	1.7	-0.5	13.2	60.8
State Bank of India	9,235	4.5	3.5	0.2	4.3	13.6	23.7	37.3	64.6
Infosys Ltd	5,971	2.9	-4.0	-3.1	-5.6	-6.3	2.8	32.5	60.1
Bajaj Finance Ltd	6,706	3.3	-2.5	-1.6	0.9	8.2	2.8	-15.5	8.7
Larsen & Toubro Ltd	5,575	2.7	3.8	1.0	2.9	-4.0	-3.6	0.5	-8.2
Hindustan Unilever Ltd	5,537	2.7	-0.5	-3.3	0.7	6.4	13.7	14.9	89.7
Maruti Suzuki India Ltd	4,224	2.1	-16.6	-3.7	-15.9	-16.3	-19.1	-21.6	5.4
ITC Ltd	5,188	2.5	-0.6	-2.7	3.0	1.5	32.7	43.4	97.0
Mahindra & Mahindra Ltd	4,573	2.2	1.5	-3.3	1.1	6.4	19.7	19.8	180.6
HCL Technologies Ltd	4,230	2.1	-1.7	-3.1	0.0	-1.1	-4.1	21.2	17.4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4,508	2.2	0.0	1.3	0.2	12.0	3.0	-13.6	55.6
Kotak Mahindra Bank Ltd	4,151	2.0	0.6	0.1	-2.6	3.5	3.5	-2.2	70.1
Axis Bank Ltd	3,950	1.9	3.6	0.4	-0.3	7.8	8.4	22.3	32.7
UltraTech Cement Ltd	3,518	1.7	1.2	0.3	4.6	-2.8	-3.9	10.6	69.7
Titan Company Ltd	3,183	1.5	-1.2	-2.3	-3.7	-0.6	-1.2	17.2	40.9
Bajaj Finserv Ltd	3,730	1.8	5.3	3.7	9.2	19.0	25.0	22.5	69.1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 Ltd	3,258	1.6	3.7	-4.6	5.0	-0.3	-0.1	11.9	97.2
NTPC Ltd	2,945	1.4	-0.2	-3.1	-2.4	-2.7	-0.3	-6.5	58.0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Ltd	2,744	1.3	0.9	0.1	-2.5	-18.4	8.0	17.0	407.8
Bharat Electronics Ltd	3,102	1.5	-3.4	-3.6	-4.1	1.9	0.3	29.7	75.8
Asian Paints Ltd	3,060	1.5	5.1	3.8	7.5	1.2	2.5	55.7	318.7
JSW Steel Ltd	2,734	1.3	-3.4	-5.5	-4.1	-15.6	-15.8	-9.2	-44.1
Eternal Ltd	2,834	1.4	5.9	-1.9	4.6	-0.8	11.7	29.1	56.1
Wipro Ltd	2,400	1.2	-2.8	-4.8	-2.5	-9.3	-11.8	-11.1	64.5
Adani Enterprises Ltd	2,747	1.3	-1.6	-2.6	1.8	5.3	3.4	-9.3	33.7
Bajaj Auto Ltd	2,673	1.3	5.5	0.6	6.7	6.9	18.5	11.8	164.1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Ltd	2,505	1.2	2.1	1.5	6.9	8.3	8.1	16.8	29.4
Nestle India Ltd	2,578	1.3	4.0	-2.2	10.3	11.8	16.0	21.6	94.6
Coal India Ltd	2,710	1.3	2.9	1.9	1.1	20.9	16.0	23.1	-5.3
Tata Steel Ltd	1,873	0.9	-4.5	-5.1	-2.5	-15.5	-18.0	14.7	139.3
InterGlobe Aviation Ltd	2,227	1.1	5.5	-2.4	11.0	2.6	11.6	43.2	51.8
SBI Life Insurance Company Ltd	1,825	0.9	-3.3	-4.8	-2.0	-6.8	-11.7	2.5	-
Eicher Motors Ltd	1,890	0.9	-1.4	-2.8	1.1	-1.2	0.9	17.9	66.6
Jio Financial Services Ltd	2,059	1.0	2.5	2.4	5.4	7.8	35.4	50.3	130.1
Grasim Industries Ltd	2,025	1.0	3.2	-2.7	10.8	16.4	35.3	58.0	91.4
Hindalco Industries Ltd	2,076	1.0	2.5	0.1	3.2	14.3	12.8	40.3	58.5

주: 지수 비중이 높은 순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